



◁해미계심사로 가는 길.

'문 없는 문' 마음으로 열라

나는 한때 내가 공부하는 법의 당호를 삼목당(三木堂)이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짓지 않았지만, 이 길지 않은 인생 침묵보다 더 좋고 마음 편하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하늘에 묵묵, 사랑에 묵묵, 그리고 아는 것에 묵묵, 그래서 삼목으로 내 삶을 이루어 나가자는 생각이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당호를 정하지 못한 건, 삼목을 실천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에 갇혀서 소송의 삶을 걷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소한 지식을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나 스스로 도취하고 침소봉대하여 떠버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 보니, 삼목당의 당호를 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말 -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고 했다. 태초의 말씀은 절대 진리를 뜻할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말'이 사물을 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이란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지식' 또는 '표현' 행위인지, 말을 많이 해 볼 수록 깨닫는다. 말이란게, 말을 하기 전엔 말을 안하면 답답해서 몸살이 나는데, 막상 말을 하고 나면 더 답답해지고, 늘 후회하고, 게다가 제 맘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까지 굳어지게 하는게 말이 아닌가? 내 안에 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겠다고 마음먹고, 심사숙고해서 한 말이 결국 엉뚱하게 이해되어 난감해지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상 느끼고 산다. 말보다 더 확실한 의사전달 행위는 '이신 전심'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서양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우에도 몇 번씩 해야만 흡족해 하는 사고방식을 마뜩하지 않게 생각한다. 말 없어도 같이 있으면 흐트란, 우리의 '정(情)'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얼얼한 봐도 아, 저사람이 목이 타는구나, 그래서 쪽바기지에 나뭇잎 한 조각 띄워 생물을 떠 주는 그 마음이 정말 더없는 의사소통 행위가 아닐까?

나는 강의 할때마다 이런 자괴감을 느낀다. 내가 아는 게 내 지식자랑을 늘어 놓는 이 말이 결국 알고 보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그러므로 내 치졸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일인가

감성으로 보는 **견**

◁9> 늘 열려있는 마음의 문-일주문

기동 돌인데 왜 일주문일까 절안에 들어오려는 자 육신아닌 심안 열리는 뜻

를 깨닫고 몸이 찾아올 만큼 수치감을 느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내 그 지식이 저들의 삶속에 얼마나 용해되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인다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독화살이 결국 저들의 몸속에 꽃혀 들어가 지식이란 파편으로 마음속까지 병들게 하는 독화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엔 사실 자신있게 강의의 불지도 못하고 뭉클 때는 때가 많다.

절 이야기를 해 보자. 절은 '일주문' 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내가 처음 절에 갔을 때 일주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일주'라는 것은 기동이 하나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기동이 둘인 것이다. 알고보니 기둥을 일렬로 세웠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도 나는 못내 미심쩍었다. 일렬로 세워도 기둥은 둘이 분명인데, 그렇다. 일렬로 세워서 일주문이라고 한 설명이 결국 잘못이었다. 절은 불립문자인 절, 아는게 별이라 할까, 그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질 뻔 한 것이다. 기동이 둘인데, 왜 한 기둥이라 했을까? 간단하다. 육신의 눈으로 아는 줄이 다 아닌 것, 마음의 눈으로 볼때 하나인 것을, 절은 절에 들어올때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부처님께 가까이 갈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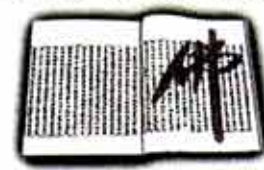
다. 그러므로 기둥이 둘인데, 왜 일주라고 하는가 하는 회두를 잡고 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범어사의 일주문은 삼문(三門)으로 되어있는데, 우람하고 육중한 지붕이 네 개의 돌기둥위에 얹혀서 250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것을 보고 서양학자들은 불가사의한 것이라 감탄 한다. 그럴 수 밖에. 물리적인 계산법 밖에 모르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의 세계는 허물어지듯, 마음의 세계는 허물어지지 않는 것을 범어사의 일주문이 증명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번듯하게 선 일주문만 절 문일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은 덜 열린 것이다. 문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마음의 문이다. 문이란 불법의 세계에선 애당초 없다. 그래서 무문관이다. 문은 경계를 뜻한다고 한다. 그래서 승속이 들어 아니라고 하여 불이(不二)라고 한다. 그리고는 불이문이라고 세운다. 승속이 들어 아니라면서 둘로 갈라놓는 문을 세운다? 뭔가 모순이 아닌가? 문(門)이란 한자는 원래 출삼문을 뜻한다. 그래서 여닫는 문짝도 없고, 빗장은 더더욱 없다. 문은 사람을 갈라 놓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화신(化身)하고 보신(報身)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은 중생을 승속으로 갈라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잡귀를 때어놓고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절문은 그래서 붉은 색칠을 칠하고, 벽사(辟邪)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문은 번듯하게 세워놓은 문만 문으로 보는 건, 우리의 딱힌 몸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절에 들어가는 길목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돌을 보고, 고해의 바다에 떠 있는 '나'를 반기는 부처님의 손짓과 그것이 불문(佛門)인 것을 마음의 문으로 깨닫는다. 일주문은 육신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문이다. 그래서 일주문은 늘 열려 있다. 세심동 계심사(洗心洞 開心寺),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절에 들어 올 수 있느니라. 문이 말한다. 전성(사건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도피안사 한글대장경 모신다

1불자 1권 불사...내달 1일 회향법회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7월 1일 도솔산 개산 기념일까지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모시기' 불사를 전개한다. 개인 단위로 동참할 수 있는 이 불사는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을 사찰에 봉안함으로써 법보 도량을 가꾸는 계기를 삼기 위해 전개된다. 불사 동참금은 한글대장경 1권당 3만원이며 동참지는 자신에게 부여된 대장

경 일련 번호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대장경을 사찰에 모시게 된다.

도피안사는 한글대장경 봉안불사 회향법회를 7월 1일 도솔산 개산 기념일에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한글대장경 청대 불사로 봉행 할 계획이다. 031)676-8700

"부처님 가르침 생활속에 심는 기회"

도피안사 주지 송암스님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보를 모시는 거룩한 의미가 있고 민족문화와 역사적 차원에서 한글대장경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 불자들이 알게 하여 불자들이 민족 문화 발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글대장경 봉안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어떤 불사보다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사찰 그 자체가 법보의 공간이지만 형상으로 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은 쉽게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글대장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쉽게 접하게 되어 법보의 가치가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 송암 스님의 설명.

"법보란 부처님과 여러 조사들의 가르침을 두루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보는 대개 상징성을 갖는 의미로 파악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보는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손에 교과서가 있어야 하



듯이 불자들의 손에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내용을 바르게 배워서 알면 누구나 그 바른 진리를 실천할 것이고 실천은 곧 정토를 건설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한글대장경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제 동국역경원이 그 역할을 해 내 만큼 사찰마다 한글대장경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송암 스님은 또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에 만들어진 대장경이란 점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한글대장경은 우리 글로 만들어진 우리시대의 문화유산이란 것이다. 한글대장경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내용 전체와 한국찬술 역대 고승들의 논저, 팔리 대장경의 내용 일부를 추가 해 한글로 제작한 만큼 우리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문화유산이란 것.

"한글대장경을 사찰에 모시는 것은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불교야말로 민족문화의 정수를 전승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불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 불사에 동참하여 지혜의 삶을 서원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ylm@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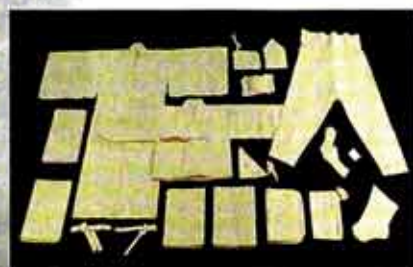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정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납입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 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 효의 실천입니다.

수 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 의(閏年壽衣)는 말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 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비지, 이불, 모장매, 학수, 버선, 도모근, 베개, 허리띠, 갓, 오산, 면도, 빨간, 턱받이, 민트 (총 20종)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비지, 속치마, 치마, 이불, 모 장매, 베개, 관삼마, 면도, 학수, 버선, 오산, 턱받이, 민트 (총 18종)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 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특품이상)

종류	구 성	재 질	액화정가	불자님가	특별혜택
삼베	남 20종, 여 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톤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남 20종, 여 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삼베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톤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남 20종, 여 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 수의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안동로 7세를 기준으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직	남 20종, 여 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를 베루로 제작한 고급 수직제품으로 안동로 7세를 기준으로 제조된 순수 삼베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로	남 20종, 여 18종	순수 삼베 직면사 100%를 재료적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료인 치자 염색으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깎기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윤달(윤사월 5.23 - 6.20)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주문을 받습니다.